

설득과 도덕적 행동을 요구하는 말투

“다른 아이들과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착한 어린이는 자기가 맡은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아이지”

“항상 웃어른을 존경해야 한다”

이치를 따지면서 어른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말투는 자칫 아이들의 욕구가 무시되어 심리적 불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스스로 도덕적 판단 능력을 갖게 못하게 하며 자신의 능력으로 해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심리적 좌절감을 쉽게 느낀다.

충고 제안하는 말투

“친구를 집으로 불러서 같이 노는게 어땠는지?”

“그런 일은 어른들과 의논해야 하는 거야”

“누나에게 물어 보렴”

아이들에게 문제해결의 방법을 제시하며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말투다. 이런 말투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이 언제나 어른들의 의

견보다 못하다는 열등감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생겨 자신감이 부족한 아이로 자라게 된다.

명령, 지시, 요구하는 말투

“장난감 좀 치우지 못하겠어”

“숙제 해야지!”

“동생이랑 싸우면 안돼”

해라, 하지 마라 식의 일방적인 명령, 지시 말도 아이에게 바람직 하지 않다. 이런 말이 오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의사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말은 아이들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창의력과 자신감을 떨어 뜨리며 남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의타심만 가중시킨다.

## 부모의 잘못된 말투

부모넷 [www.bumo.net](http://www.bumo.net)

생각없이 내뱉은 한마디가  
아이들을 의기소침하게 한다



### 경고 위협하는 말투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따가 아빠 오시면...”

“너 그렇게 엄마 말 안 들으면...” 부모들은 곧잘 명령적 말투가 효과를 얻지 못했을 때, 보다 강력하게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이같은 말을 하게 된다. 이 말 속에는 부모의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런 말투는 권위에 대한 저항감 또는 적개심을 갖게 하고 벌을 피하려는 도피 또는 회피행동을 배우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친밀감도 상실하게 만든다.

### 정신적 좌절감을 불러 일으키는 말투

“철들려면 아직도 멀었어”

“정말 생각이 없는 아이로구나”

“아이구 이 바보야, 이걸 숙제라고 해 놓은 거니?”

평가, 비판, 아이의 자신감을 짓밟는 말투. 이같은 말투는 아이의 말이나 행동을 어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어린이를 비난 우롱하는 것으로 반복될 경우 아이는 부정적 평가에 대하여 반항하거나 자기 비하적, 자기 조소적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며 적극적 사고나 행동을 피하게 되고 창의적 사고를 못하게 된다.

### 탐색 및 심리분석의 말투

“너 동생을 시기하는구나”

“선생님을 놀려 주려고 그랬지?”

“도대체 네가 그러는 이유가 뭐야?”

아이의 말과 행동의 원인을 추궁하거나 분석하는 말투다.

이런 말투는 아이의 욕구가 무시될 뿐만 아니라 부모의 해석과 심리분석이 옳은 경우 당황하여 수치심을 갖게 된다. 반대로 부모의 해석이나 심리분

석이 옳지 않으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고 생각하게 되며 대화하고 싶은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 둘러대는 말투

“그래, 그래 내일 사다 줄게”

“아기는 배추 속에서 나오는 거야”

부모가 곤란한 상태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 또는 둘러대는 경우이다. 이같은 말투는 어른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하기 쉽다. 또한 궁극적으로 부모의 말을 아이가 믿지 않게 되고, 둘러댄 부모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경우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면 혼란스러워 한다.

### 남과 비교하는 말투

“옆집 아이는 일등을 했었는데 너는 도대체 뭐니?”

“동생을 좀 봐”

“옆집 지민이 반만큼이라도 따라 해보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여 아이로 하여금 수치심, 부끄러움, 시기심 등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말투다. 그 결과는 어른 말에 대한 반감을 증폭시킴과 동시에 열등감을 자극하고 비교대상에 대한 적개심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

어린이와의 대화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일반적인 오류는 아이의 욕구를 무시하며 주관적 판단에 의한 평가를 절대시하고 아이의 느낌과 생각 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일방적으로 하는 말이지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린이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맺지 못하게 한다. PPFK